

[보도자료] 쿠팡, 올 들어 500개 직구 브랜드 런칭..대규모 글로벌 쇼핑축제 연다

2022. 6. 17.



- 중국 최대 쇼핑 페스티벌 맞아 인기 해외직구 상품 최대 90% 할인
- 쿠팡 로켓직구, 2017년 미국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중국, 2022년 1월 홍콩으로 서비스 확대
- 올 들어 가전·식품·패션·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 브랜드 500개 이상 론칭

2022. 6. 17. 서울 - 쿠팡이 상반기 중국 온라인 쇼핑 최대 행사인 6.18 쇼핑 페스티벌을 맞아 '로켓직구 6.18 쇼핑축제'를 18일부터 사흘간 진행한다.

'로켓직구 6.18 쇼핑축제'는 고객들이 국내에서도 페스티벌기간 동안 제공되는 대규모 할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.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전년도 광군절 프로모션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글로벌 브랜드 상품들을 쿠팡 로켓직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.

이번 '로켓직구 6.18 쇼핑축제'는 오직 쿠팡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. 고객들은 인기 직구 상품을 최대 9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약 1만원 상당의 가격대의 상품들로 구성된 '만원 Shop' 코너에서는 합리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다.

각 카테고리별 Top 브랜드 할인전도 함께 진행된다. 음향 전문 브랜드 QCY, 마살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나이키와 스케처스, 코스메틱 브랜드 이솝, 에스티로더 등 다양한 글로벌 인기 브랜드들의 상품을 한정 특가로 준비했다.

쿠팡 고객들은 로켓직구 서비스로 해외 상품을 주문 후 평균 3~5일 만에 받을 수 있다. 고객은 쿠팡 앱에서 실시간 배송 조회를 통해 현지에서의 제품 출고와 운송, 통관 절차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. 쿠팡 와우 회원이라면 1000원~2000원짜리 로켓직구 상품을 하나 사도 무료 배송된다. 해외 상품을 구매 금액과 수량에 상관없이 무료배송하는 국내 서비스는 로켓직구가 유일하다.

쿠팡은 올 들어 미국·홍콩·중국에서 가전·식품·패션·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 브랜드를 500개 이상 론칭했다. 2017년 미국을 시작으로 로켓직구를 시작한 데 이어 2021년 1월 중국, 2022년 1월 홍콩으로 직구 서비스를 확대했다. 올 들어 해외 직구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대거 선보이며 12개 주요 카테고리에서 8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.

올 들어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 가운데는 생생한 음질을 자랑하는 다양한 글로벌 음향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. 블루투스 스피커·헤드폰 등 음향 기기로 사랑을 받는 마살·뱅앤올룹슨·젠하이저·QCY를 비롯해 골전도 기술을 적용한 '애프터샷' 이어폰 등 인기 브랜드들이 대거 론칭됐다.

또 최근 '아시아 뷰티 허브'로 불리는 홍콩 시장으로 직구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고객들은 슈에무라·아베다·시세이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뷰티 브랜드 수십종 이상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. 진한 버터 맛을 느낄 수 있는 '홍콩의 명물 쿠키' 제니 베이커리, 중국의 대표 가성비 전자제품 '샤오미', 호주 건강기능식품 '네이처스웨이'도 만나볼 수 있다. 언더아머·오니츠카타이거 등 트렌디한 유니크 직구 브랜드들도 다양한 상품을 런칭했다. 이밖에도 인스타360, 레이저 등 인기 디지털 브랜드 라인업도 확대했다.

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약 5.1조원으로 전년 대비 26%(약 1조원) 성장했다. 쿠팡 로켓직구 관계자는 “로켓직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쿠팡은 고객들을 위해 차별화한 해외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브랜드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